

코스트 경쟁력 강한 베트남 – 지금이 진출에 절호의 찬스

일본의 베트남 비즈니스 조사단이 최근 베트남을 방문하여 조사한 보고서를 요약 소개한다.

2007년은 베트남 경제가 유난히 활황이다. 베트남은 지난 1월에 WTO에 가입한 후에도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 최근에 섬유업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베트남으로 비즈니스를 이전해 볼 것을 염두에 두고 시찰하는 중소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이제까지도 베트남은 포스트(post) 중국(중국의 뒤를 이을 나라로서 베트남·인도 등을 지목하는 여론이 있음) 또는 중국 플러스 원(China plus one : 중국 risk를 분산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지목되는 첫째 나라)의 첫째 후보로서 거론되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은 여러면에서 코스트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베트남의 강점을 알아본다.

조사단은 “베트남이 중국 연해부(沿海部)와 비교하여 노동력 코스트가 싸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다.”고 베트남 비즈니스의 우위성을 지적하고 있다.

베트남은 정부가 2006년 1월에 하노이 및 호치민시 중심지구에 있는 외국 투자기업에 취업하는 종업원의 월액 최저임금은 87만동(동 : 베트남의 화폐 단위), 하노이, 호치민시 교외는 79만동, 기타지역은 71만동으로 개정되었다. 직업훈련을 수료한 종업원은 7% 증가하므로, 하노이나 호치민에서는 실질적으로 93만 1,000동(일본엔으로는 약 7,000엔)이 된다. 또한 고용주는 15%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베트남에서는 2006년에 외자계 기업 노동자의 월액 최저임금이 40% 인상되었는데, 중국 연해부나 주변의 태국 등과 비교하면 그래도 코스트 경쟁력은 강하다. 이번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 7월 현재 호치민의 유력한 일본계 봉제공장 노동자 1인당 코스트는 평균 125만동(일본엔으로는 약 1만엔)이 된다. 점차적으로 민간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국영(國營)기업은 외자계 기업의 약 절반 수준이다.

또 하나 베트남의 강점 중 중요한 점은 노동력의 질(質)이 높다는 것이다. 부지런하고, 예의 바르고, 손재주가 좋다는 것도 상품을 만드는데 유리하다. 금전적으로 아직도 상당히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유가 있는데 유교정신이 백 본(back bone : 신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약 8,400만 명 인구 중에서 50% 이상이 30세 이하로 되어 있으며, 매년 80만명의 새로운 졸업자가 사회에 나오고 있어, 젊은 인재가 풍부하다. 최근 섬유산업에서 노동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중국 연해부와 비교하면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원래 베트남 사람의 대일감정(對日感情)은 좋으며, 국가간의 관계도 좋아 정치적인 리스크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 조사단장은 “지금 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에서 베트남은 일본에 매우 우호적인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회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 경제·산업 등의 기초구조)는 정전이 일년에 한번 있으며, 30분의 계획정전(計劃停電)이 있을 정도이며, 전기나 물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없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걱정할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도이모이 정책(경제·사회 건설의 쇄신정책)’으로 시장경제를 20년 전에 도입하였으며 실질적인 경제성장은 10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 무역 등의 전반적인 법제도 등은 미비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앞서가고 있는 중국의 발전 경위(經緯)를 상세히 연구하면서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다.

세계의 생산공장이 된 중국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인민위안고(人民元高)나 인건비 상승, 노동력 확보 문제 등으로 종전과 같이 저코스트로 섬유제품을 생산하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코스트 인제 확보에 우위성이 있으며, WTO 가입 후에도 순조롭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은, 일본과 기질(氣質)이 서로 비슷한 것 같다. 중소기업에게는 드디어 베트남으로 진출할 절호의 찬스가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견해가 뚜렷하다.♣